

#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

최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부상은 한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위상을 지키고 세계 경쟁에서 도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중국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8%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8.1%의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및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한국·동남아의 경기회복 지연 속에서도 중국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7년 이후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도 중국만은 1997~1999년 간 7~8%의 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통화를 절제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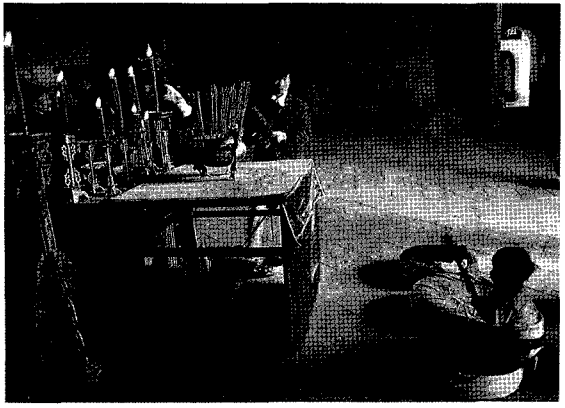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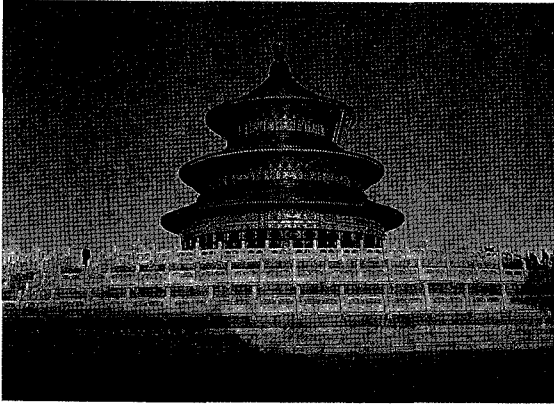
중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과 강점을 보유하고 있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표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중국 안장협회(安裝協會)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韓中 양국 설비건설업계의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합의를방략을 체결하고, 중국 상해시 핵발전소 시공현장 등 중국 주요 건설현장을 참관했다.

어 앞으로의 경제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 현재 12.7억 명인 중국 인구는 오는 2050년에는 16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어 거대한 내수시장의 존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전략적으로 국



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6,000명으로 추산되는 막강한 중화 경제권의 화교 네트워크와 화교자본의 존재도 중국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7~8%의 안정적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과 2008년 북경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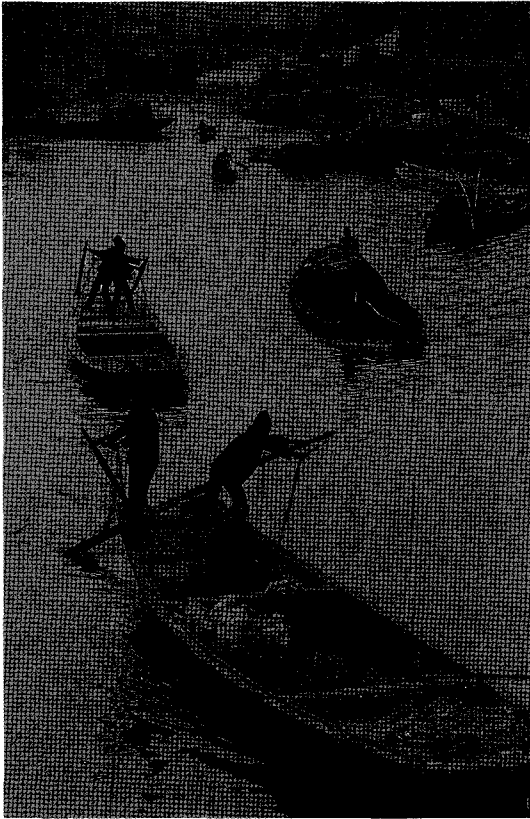
이런 중국 경제의 발전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372억 달러로 총수출의 21.6%를 차지하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고, 무역·투자 등에 미칠 영향력 또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한국에게 기회이면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확대와 신사업 부상으로 수출과 투자기회가 확대됨과 동시에 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국내 한계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IMF사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위상을 지키고 세계 경쟁에서도 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전통산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하면서 최근 선진기업의



진출, 시장의 급팽창, 중국 정부의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TV(세계 점유율 36%), 에어컨(50%), 세탁기(24%) 등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가전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본 가전업체 마쓰시타의 TV, 도시바의 비디오, 산요의 DVD 플레이어 등은 사업부서의 본사 기능을 아예 중국으로 이전했으며, 한국 제품들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겨냥한 선진 기업들의 중국 진출로 오는 2010년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휴대전화업체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등 빅3사가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현지 생산공장

없이 시장점유율 5~6%로 추격 중에 있다.

정보통신 시장은 저조한 보급율(2000년 이동전화 : 3.5%, 인터넷 : 1% 미만)을 감안할 때 향후 무궁한 수요 팽창이 예상된다.

오는 2010년 내 중국이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범용기술, 중저가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 백색가전, 섬유(의류, 직물), 신발의 생산·수출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 플랜트 건설 등의 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범용기계의 기술수준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합성, 디지털 가전 및 첨단공작기계, 철강산업 등 일부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분야는 5년 내에 정보통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10년 내에 한국과 대등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10년 후에도 한국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 정도이나 최근 중국의 투자 강화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철강 등의 제조업과 항공, 미디어 등 외자 진입을 규제하는 기간산업에서 국유기업의 통합·재편으로 거대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추월하는 조선대국을 목표로 조선업을 재편했고, 철강업계는 선두 3개사가 업무제휴로 원료 공동조달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전자, IT기업들을 중심으로 구미 기업들보다도 더욱 자본주의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인사제도, 보상체계, 경영관행 등에 있어 중국의 전통적 국유기업의 경직적 형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스톡옵션제 도입 등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동료 및 부하에 의한 360도 평가, 연공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기업 경영

을 하고 있으며, CEO들도 고학력의 젊은 경영자이거나 해외유학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투자과 시장을 바꾼다」는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무기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을 주지 않는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여 필요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분규를 통제하고 거액의 횡령, 밀수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등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일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해 포동(浦東), 북경 중관촌(中關村), 심천이 중국 첨단산업 3개의 지역축으로 각각 중부, 북부,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상해 포동은 양자강 유역 발전을 기점으로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중심지로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서비스업 등에 세계 우수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 향후 세계적인 하이테크 메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는 보세창고, 상품교역, 수출가공 등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국제적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북경의 중관촌은 인터넷산업 및 과학기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과학 입국을 위한 시험지구로 개발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시범기지로 북경대와 칭화대 등 중국 우수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7,000여 개의 IT업체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천은 IT산업기지로 가장 먼저 개항된 중국 경제개방의 상징적 도시이다. 잘 정비된 인프라, 오랜 시장경제 경험과 위치상 동남아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국 남부권 IT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와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쟁력 수준, 해당 지역의 현실적 구매력, 장래성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가장 유망한 해외시장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형태에 따라 경제의 고도화와 효율성 제고가 결정된다.

중국은 다국적기업의 유치와 자체기업의 육성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역을 대폭 잠식하고 있다.

중국이 주는 위협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재점검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로 중국과 차별화하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동시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합작투자를 통해 부품, 중간재, 자본재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완제품의 중국 내수시장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국 경제, 산업,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중심 산업이 노동집약적 중저가 제품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유의하고 고소득계층을 겨냥한 High-end Market에 대한 고가전략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Anycall 휴대폰은 현지 합작공장이



없어 물량 또한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지가격 1,000 달러(8,000위안)의 고가전략이 주효해 고급브랜드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신분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제일모직의 갤럭시 신사복도 한 벌에 2,000위안 정도이나 고급품으로 인식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한 사례이다.

중국 내에서 높은 보수인 외국인 회사 근로자 월급이 1,500위안임을 감안하면 고가품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현지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저가제품이라는 인식이 들면 마케팅은 실패한다.

반면 중국 경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 정치·경제상황, 상관습, 화교 네트워크, 언어 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 EU와 함께 21세기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되어 아시아에서 일본을 대신해 리더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고려한 국가 전략을 구사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 문화 등 비정치 경제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문화 열풍 현상은 문화 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대신 중국과 아세안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균형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과 일본의 무역불균형이 통상마찰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며, 아세아 및 동북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